

모 두 말 씀

2021. 1. 25.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 규 상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위험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기후변화”라는 위험도,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경각심의 대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포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험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미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금융권도

전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을 주목하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2. 2020년 녹색금융 추진성과

정부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제안하고,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범정부차원의 추진단도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작년 8월, 금융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출범한
「녹색금융 추진TF」는,
금융분야에서 녹색금융을 이끌어 나갈 핵심 동력입니다.

이 TF 운영을 통해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를 제공(‘21.1월)하고,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간(‘20.12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 강화 및 민간자금 유입 유도,
관련 시장인프라 정비 등
녹색금융 활성화 추진전략(‘20.12월)도 세운 바 있습니다.

3. 2021년 녹색금융 주요 추진과제

2021년에는, 각종 녹색인프라 정비 등
3대분야 12개과제(별첨2 참고)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❶ 첫째,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별로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확충하여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별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간 「그린금융협의회」를 신설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❷ 둘째, 금융권에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권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금융 모범기준」을 마련하여
금융회사별 특성·상황에 맞는 녹색금융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지원하되,

특히, 금융회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조항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반면,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금융권에 얼마만큼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트레스테스트 등의 영향분석 작업을 지속하면서,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③ 셋째,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를 정비·확충하겠습니다.

녹색투자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시행 5년이 된 스튜어드십 코드도 종합 점검하여
기관투자자들의 환경책임투자 강화도 유도해가겠습니다.

국내기업의 환경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장참여자들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크리스틴 라가르드 前IMF총재(現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기후변화가 금융권에 야기하는 위험은
금융권의 무관심(Disregard), 느장대응(Delay), 그리고
불충분한 지원(Deficiency)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금융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Regard) 제고,
적시성 있는 대응(Response),
그리고 충분한 지원 강화(Reinforce)를 실천하면서,

위기로 지적된 3D 요인이,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3R 전략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 (3D) Disregard, Delay, Deficiency → (3R) Regard, Response, Reinforce

금융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 녹색금융 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